

나병환자를 치료하는 그리스도

초기 그리스도 신봉자 사이에는 신과 병을 궁극적으로 동일시 했으나 복음서에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병치료 사명이었다.

마태, 마가, 요한, 누가(그 자신이 의사였다)의 각각 복음서에 그리스도가 치료자로서 마비나, 절름발이, 병어리나 소경, 나병환자나 열병환자를 고친 예는 수없이 많이 기술하고 있다.

에히델나하 복음성구집(11세기 중엽)에서 그리스도의 병치료 사명에 입각해서 행해진 다수 치료의 하나 Ms. 9428, fol. 23. 알베르 1세 왕실 도서관(브뤼셀).



#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